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 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강 인 석	F.하비에르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하나 (원장)
	김 미 리	에블린 (유·초등부)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꿀 벌 유치원	최 향 숙	베로니카 수녀
요셉어린이집	김 아 람	소화데레사 수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祝 세례식

세례식	12/04(토)	오후 2시
-----	----------	-------

※ 모든 신자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일 시 : 12월 04일 / 오전 0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12월 06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영적 예물

-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장님 착좌를 위한 영적 선물
 - ①미사 및 영성체 ②묵주기도 ③성체조배 ④희생
 - ⑤새 교구장님을 위한 기도
 - ⑥ 제출기한 : 11월 28일(일) / 성전입구 봉헌함

● 알 림

- 12월 08일(수) 저녁 7시 미사는 본당 임원들을 위한 미사로 진행합니다.
- 11월 25일부터 목요일 10시 미사가 재개됩니다.
- 일상회복 1단계에 따른 변경 사항
 - 11월 1일(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성당인원 50% 입장가능(330명)
 - 레지오 및 소모임 시작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죽은 이들을 위한 전대사 부여
 - 기간 : 11월 01일~30일(위령성월)
 - 조건 :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대림시기 준비

- 대림절 신앙실천 봉투(대림저금통), 대림절 기도문, 판공성사표, 달력 등은 구역·반장님을 통해서 배부합니다.
- 구역 외 신자는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판공성사
 - 11월 27일(토)~12월 19일(일) 매 미사 30분 전후에 실시합니다.
 - 본인의 고해만 간략하게 합니다.
 - 별도의 판공성사 일정은 없습니다.
- 2021년도 교무금 납부 및 2022년도 교무금 책정합니다.

● 대림 특강 (목요일 저녁 19:40)

날 짜	제 목
12월 02일	생태적 회심 1
12월 09일	생태적 회심 2
12월 16일	생태적 회심 3

● 다음 주일(12/05)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3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1월17일 ~ 11월23일)

• 교 무 금		6,337,000원
• 주일헌금		4,526,400원
• 국군장병 및 수감자를 위한 2차 헌금		1,045,600원
• 감사헌금	백진주10만원 김철성 2만원 이점임10만원 강복희10만원 차○○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11/28	권태희	오성환	신종구 장익근 김명선
12/05	박혜선	도현만	정찬진 최승일 권태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1/28	최창열	박용환	김광수 김영배	오광운
12/05	김인기	박형순	이운영 박용환	박승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116. 일반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에 존재하는 특별한 연대를 실천합니다. 우리 문명은 연대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또는 실제로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연대는 언제나 잘 받아들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연대는 더러운 말, 감히 입에 담기 힘든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대는 간헐적인 관대한 행위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와 관련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이의 삶이 소수의 재산 착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빈곤, 불평등, 일자리와 땅과 집의 부족, 사회권과 노동권의 거부를 불러일으키는 구조적 원인들을 타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의 제국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에 맞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연대는 역사를 만드는 길이며, 대중 운동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연대입니다.”

117.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 살아 있는 보편적 양심과 상호 관심이라는 불꽃에 호소합니다. 풍족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인류 가족을 위하여 물을 아끼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 너머로 바라볼 수 있는 도덕적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게도 인간적인지요! 우리 울타리 밖의 사람들일지라도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와 같은 태도가 요구됩니다.

재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고

118. 세상은 모든 이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같은 존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피부색, 종교, 재능, 출생지나 거주지, 다른 많은 차이가 모든 이의 권리보다 먼저 일부의 특권을 우선시하거나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든 이가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고 개인의 온전한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9. 그리스도교 초기에 여러 사상가들은 창출된 재화의 공동 목적을 숙고하고 이에 관한 보편적 전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대 그레고리오 성인의 말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물건들을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